



교 시
진 경 자 리 화 유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발행소: 전주시 호지동 3가 1200번지
전주대신문사
전화: 편집국 220-2442
운영실 220-2441

발행인권 편집인 이종익 / 주간 원한식 / 편집국장 최경주 (1986년 8월 27일) (1986년 8월 27일) (1986년 8월 27일) THE JEONJU UNIVERSITY PRESS 1996년 10월 28일 (월요일) [주간] (제 499호) ①

지/면/안/내

② 제2외국어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미국의 입지 때문에 영어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는 제외되고 있어 제2외국어의 생존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이와 관련한 특별기고를 실는다.

③ 노동법 개정의 방향
한국의 노동법은 4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63년부터 1987년 이전까지 노동입법의 영역에서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노동법개정 작업이 한창인 현 시점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법개정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④ 통목이후 특유의 정치·사회적 변화
독일 통일은 독일인들의 삶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이에 특히 경제 분야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⑤ 골프연습장 공사에 대한 의견
사범대 운동장에 들어서는 골프연습장은 우리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최광호(국어국문·4)군의 글을 실는다.

⑥ 전북에 새긴 명사의 글씨따라
예향 전북지역에는 당대의 내노라하는 명필들의 글씨가 많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명필의 글씨를 찾아본다.

⑦ 총동연 단독 선거 실시
동아리 대표회의를 통해 총동연 선거 시행 계획이 인준됨에 따라 총동연이 총선외와 별도로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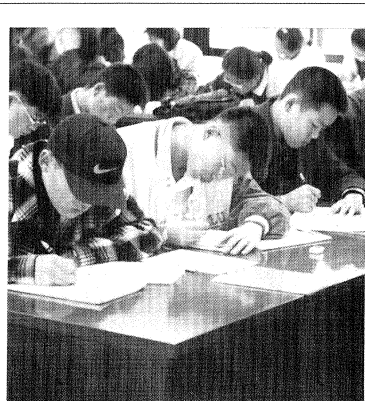
⑧ 전국고교 백일장대회
지난 25일 교수연구동 8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전국 고교 백일장 대회'가 27개교 177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에 운문부와 산문부의 당선작을 정원을 각 각 신고 국문과 전일학·전휴학 교수의 심사평을 들어본다.

총학·단체 투표, 오는 11월 14일 실시

동아리 자체 선거 '불인정'... 진혁등 3명 사퇴

오는 31일 후보자등록 마감

전학대회 상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대환)는 지난 주 3번의 선거권 모임을 통해 선거일정 및 후보선출, 동아리 후보와 3명의 선관위원들의 사퇴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중앙선거위는 지난 22일 열린 6차 선거권 모임에서 진혁(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김대환(예체능대학 학생회장), 김선자(경상대학 여학생회장) 선관위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공식 처리한다는 입장을 지난 25일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위의 주권 이해 지치부라고 독자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견제하겠다고 밝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관련기사 2면]
또한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지난 21일 5차 선거권 모임에서 결정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학생회와 단대 총학생회 선거는 오는 11월 14일에, 총동연 선거는 오는 12일에 각각 투표를 실시한다. 총학 및 단대선거는 지난 24일 등록서류 배부를 시작하여 오는 30일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며 31일에 후보등록을 마감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1월 1일 후보를 공고한 후, 5일 제1차 합동유세를 민주광장에서, 6일 제2차 합동유세를 강당에 실시하며, 오는 8일에는 진리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총동연 선거는 오늘부터 등록서류 배부를 받으며, 오는 31일 후보 등록일(마감) 선거인 명부 열람, 11월 1일 후보공고를 일정에 잡고 있다.



캠퍼스 라이프 청보리의 노래

지난 25일 '제2회 전국 고등학교 백일장대회'가 전국 27개교 1백77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교수연구동 8층 세미나실) (사진:글 사진부)

보도단신

기획실, 입시 홍보 CF 제작

기획실(실장:한태중)에서는 교육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대학의 특성을 강조 시키고 학생들과 하며 영감을 이용한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시홍보 CF를 제작한다.

이번 CF는 '전주대학교'라는 제목으로 대학의 참모습과 미래를 향한 대학인의 비전을 부각시킬 것이며 시간은 30초이고 제작 비용은 5백만원 정도의 예산(제작비(주)에서 지난 10월 16일부터)를 들였다.

제작방안은 전체적인 입상은 깨끗한 대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젊고 밝았으며, 그러면서도 노력하고 연구하는 창조적인 대학의 모습을 밝힌 킬로와 역동적인 화면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40년 역사의 전통과 미래의 대학 발전상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입시 홍보용 CF는 오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전주 KBS-MBC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박물관 문화강좌

박물관(관장:이재운)의 주최로 제3회 박물관 문화강좌가 '한국 민속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진리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중철 국립전주박물관 관장의 강연으로 진행될 이번 강좌는 고구려문화의 이해와 그 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다민족의 정의와 성격, 민속학의 연구와 조사방법, 한국의 민속연구 동향자료, 민속문화의 변동과 현대적 조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강의할 방침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 강연을 통하여 우리 민속문화의 새롭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속의 이해를 하고 그 위에 새로운 문화를 접목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경상대·사범대 간이휴게실 설치

총학생의 편의사항을 하나인 이부대-경상대의 사범대 사이에 간이 휴게실 설치가 구해져 되고 있다.

9월에 설계를 의뢰해 11월에 설계가 마치고 신청허가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간이 휴게실은 85평의 단층 조립식물에 건설되며 부대 시설로는 30여대의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휴게실 내부에는 매점들이 들어서게 되고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 학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취재부)

무관잡기

▲97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 선거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총동아리연합회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러내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총동연 선거권을 주장한 것 외에도 21명의 중앙선거위원 중 3명의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해 선거도 시작되기 전 악재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5일 있었던 7차 선거권 모임에서 일관되게 회기는 했지만 한 때 4명의 선관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것은 이번 주부터 총동아리연합회 공보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 사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4일 6차 중앙 선거권 회의를 지켜보면서 전학대회의 폐단이 이렇게 깊어진 이유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 간부의 헌신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전학대회가 정말 믿어줄 수 있는가? 간부의 과실을 지적한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전학대회를 좀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학생

들의 열의와 정파를 달리는 다수와 소수의 의견 싸움으로 비춰질까 때문이다. 전학대회 진행과정의 소수의견 묵살과 총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인 점에 대한 불복평등을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지적 아닐까. 중앙선거위를 비롯한 전학대의 위원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를 탈퇴한 배경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선거위원 안에서의 고민이 선거공고가 발

을 찾아 보기가 힘든 정도이다. 항상 과반수를 넘기가 힘든 위원들의 참여도나 사형제외이나 이러한 선거 설정에 무관심한 선관위원들이 과연 이번 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동아리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총동연과 선관위의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시위와 사들로 인해 올해 선거는 유난히 힘들어질 전망이다. 선관위에 대한 평가는 선거가 끝나야 알겠지만 하나의 구명을 막

간부 헌신성으로 거듭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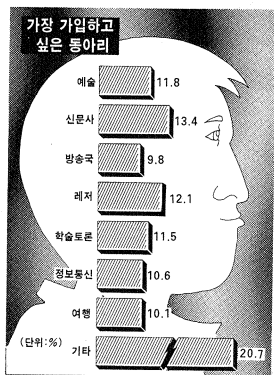
은 이후에 사회활동은 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3명의 선관위원들의 사퇴서는 결국 수리됐다. 이에 중앙 선거위는 그 3명의 공백을 18명의 선관위원들의 결의로 메꾼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약간의 위협성은 안고 있다. 전학대회의 승인이 없이 중앙 선거관 나옴대로 결정할 사항이기에 이후 전학대회 위원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정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몇몇의 선관위 모임을 참석해 보았지만 선관위원들의 간부의 헌신성

다 여러개의 끝은 구멍이 터진 격이 됐다. 이러한 불씨를 제공한 것은 결국 전학대회 위원들의 무관심과 학생들의 무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들은 물론이요 간부의 헌신성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간부의 헌신성을 보여줘야 하고요 전학대회 위원들과 일반 학생들은 올해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적과 동태의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최경주 편집국장)

신세대 기자 모집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러커 활동으로 대학신문사를 꼽았대요.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언 공을 못써.' '사경쟁나기가 무서워.'
'시각은 너무 많이 뺏겨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요.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을 나의 얘기만 듣고 포기하기엔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신세대 96학번 여러분!
크게 슌 한번 들어시키고 신문사로 오세요.
색다른 대학생행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자구요.
섬머 미치 겁먹고 포기하는 건 아니죠?



'뿌리'를 이어가는 새내기 모집

제 28기 수습기자

- ◆모집 대상 : 96학번 00명
- ◆모집 부문 : 취재, 사진, 만화(컷)
- ◆모집 및 전형 일시: 11월 12일 오후 5시 까지
- ◆전형 방법 : 면접
- ◆원서 접수 및 장소 : 전주대신문사 편집국 (학생회관 3층 진리관 앞 층 220-2442)



전주대신문사

논단 > 통독 이후 독일의 정치·경제 및 사회의 변화

구동독인, 경제 상황 만족... 시장경제 체제 신뢰감 하락

통일, 구동독 경제 붕괴·대량 실업자 발생

세류일침



신훈호(법학·조교수)

오늘 경향까지의 신문은 '인두회세 피살'이라는 기사가 1면 등을 장식하고 있다. 1면뿐만 아니라 신문의 도처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하다. 신문을 보면 서 좌잡한 마음이 든다. 보면 볼수록 더욱더 쓸쓸한 생각이 든다. 인두회세가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를 살해했다. 권총화제가 민족정기를 바로잡는다고 10년 이상 인두회세를 쫓아다녔다. 드디어 박기서씨가 "정의봉"이라 표시된 통풍기로 인두회세를 살해하고 "정의"를 위해 민족반역자를 용서했다." 또는 "민족자존심을 되찾았다"고 말하였다. 안. 박기서씨의 인두회세 살해후의 행동은 마치 자신이 민족영웅이라도 된 듯 당당했다. 언론의 눈초리는 민족의 역사적 진실이 파헤쳐져 필지도 모른다든 사심을 안배하게 한다.

민족정기와 생명의 존귀함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아니한 못하다. 인민의 흔들리는 민족을 위하여는 이해에 정경을 일으켰고 수백만의 존귀한 생명을 잃었다. 수백만의 독일인이 생명을 잃었다. 지구상에 있는 8천여 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쉼 없이 민족과 갈등을 일으켜 왔다. 지구상에 50여 개의 종족문명이 있으며 매년 수십만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끝없는 박기서씨의 "민족자존심을 위한" 인두회세의 살해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박해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967년에 한 판결에서 "한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영속한 것이다. 존엄한 인간존엄의 근원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한 인간의 생명/부담을 형성하는 '민족정기'나 '민족자존심'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사건과 관련된 신문의 논조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진언부 내용은 인두회세의 피살은 '민족의 역사적 진실이 파헤쳐진 것'임을 인양하게 하지, 지구보다도 더 무겁고 고귀한 인간성생명을 인양하게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인도의 피살을 하나의 대법판이 다른 대법판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인양증보'의 당연한 귀결이 될 때까지도 한. 안. 박기서 민족의 죄인이라는 그런지 안의 빈소에는 분상제사, 문상자를 맞을 고인의 가족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항자의 생명/인간 존엄의 존귀함을 알아야 하고 어항자의 죽음이건 죽음이든 업속하여야 한다. 결국 언론도, 인터뷰에 응한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안. 박을 알고 지냈던 그의 주변인들도 모두 민족이라는 이름에서 인간성생명의 존귀함을 망각하는 절박에서 박기서씨의 발발 원인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독'으로 취급, 역사적으로 사법/위정, 개인적으로서는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는 시정의 논란(조선일보 25일자 사설 참조)을 용납하는 것으로 반/합리화하는 것이다. 민족정기와 민족정신, 민족의 자존심은 인간성생명의 존귀함을 인양하는 마음으로, 인간성생명을 존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지켜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독일프리드리히 니우만 재단의 R.Melnarbus 박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이방식(독어)교수가 요약 한 것을 실었다. (원문은 이 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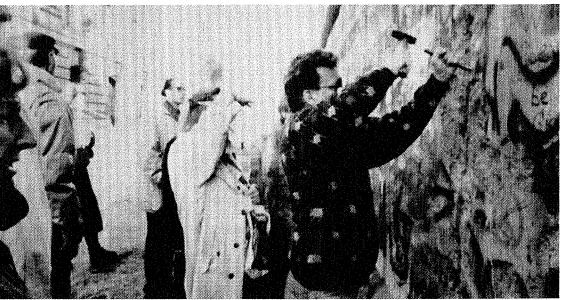
독일과 통일은 독일인들의 삶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독일은 지금까지 독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논하였다. 독일 스키어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여론은 다음과 같다.

구동독인들은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 자신들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인양하고 있고 그 만능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동독인들의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관료주의에 대한 신뢰감을 하락하고 있다. 현재 구동독주민의 55%가 통일 전보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대부분 구동독인들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 대상 34%만이 시장경제 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53%는 구서독체제를 긍정적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1990년 초 여론조사에서는 구동독인 중 77%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독일 국민들에게 정경을 용납하는 사이다. 이전의 여론 조사는 통독 이후 구동독주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결함에 근거하고 있어서 구동독주민들이 구동독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90년 10월 3일의 독일 통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사건이었고 특별한 역사적으로 여러 박해 받은 사람들에게 미망이 감을 주었다. 구동독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중요한

국제의 정치 상황 즉, 구소련의 세력 약화가 뚜렷해지기도 통일이 가져온 요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 당시의 끝에서 깨어나는 독일이 높다. 독일인들은 너무 커다란 기대를 했던 것 같다. 독일 연방 수장은 구동독주민들에게 모든 사안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구동독주민들은 90년대와 90년대 구서독 지역에서 있었던 경제 기적이 자신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부풀어 있었으나 그러나 통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구동독의 계획경제와 구서독의 시장경제는 무난하게 통합되지 못했으며 구동독 경제는 통일로 붕괴되었다. 1990년과 1991년 구동독 국내총생산은 40% 정도 감소했고 특히 동독은 60% 정도 줄어났으며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구동독의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은 미안하고도 말하고 있다. 비호소 1992년도에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도까지 연평균 7%의 성장 이 있었다. 그후 다시 성장세가 둔



(독일 통일은 독일인들의 삶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되고 있다. 구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 버렸다. 구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 버렸다. 구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 버렸다. 구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 버렸다.

정지되어 분열되어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분리, 특히 구동독지역 주민의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논하였다. 독일은 현재 위기상황이라고 할

말일없이 상존하고 있는 경제에 익숙해져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많은 투자가 자용의 설비 투자이고 고생산비율에 직면해서 생산설비비율의 하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설비로 교체하는 데 많은 노동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에 한스 슈뢰더 보장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비보존, 의료보존, 연금보존 등 사회보존과 관련된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개혁의 시기에 있다. 독일은 인간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가 건설에 관심이 있는 것이 맞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량 실업자 상존문제 경제위기 도래

생산설비 해외 도피에 주 원인 있어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통일전 구동독의 상존하는 달리 사설/집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서독에서 구동독지역으로의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구서독 주민의 생활 수준의 공통과 달성을 위해 매년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커다란 규모의 이주자들이 있었다. 1991년 이후 1996년도까지 구서독 지역을 위한 이민정책과 취업, EU 및 시의 보장정책들의 이전이 있었으며 1995년 100만 명이 넘는 구서독인들이 구서독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이주자들은 구서독의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구서독의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구서독의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구서독의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수 있고 약 400만명의 대량실업자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서독은 10% 구동독지역은 15%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로 제조업에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위험할 것이다. 실업문제는 몇 년 동안 중요한 정치적 정경이었고 대대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실업문제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지되어 분열되어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분리, 특히 구동독지역 주민의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논하였다. 독일은 현재 위기상황이라고 할

대학이야기 (7)

초기대학 교육내용... 일곱가지 학예를 기초

교수의 학생의 조부모형 성명 무너비시비라는 유명한 초기 대학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웠는가? 초기 대학의 교육 내용은 오늘날 고전교육이나 일반교육이라고 부르는 일곱가지 학예(Seven Liberal Arts)를 기초로 하였다. 여기서 쓰는 우선 세 과목을 배운다. 소위 3학(Trivium)을 배운다. 그것은 문법학인 라틴어, 로망스인 프랑스어 그리고 편지쓰는 방법을 포함하는 사학을 말한다. 이러한 학예의 지식

위에서 4과(Quadrivium)라 부르는 산술, 기하학, 천문학/과 용어를 배운다. 이런 모든 것은 중세대학의 학예학이라 배웠던 학예학은 오늘날 고전교육이나 일반교육이라고 부르는 일곱가지 학예(Seven Liberal Arts)를 기초로 하였다. 여기서 쓰는 우선 세 과목을 배운다. 소위 3학(Trivium)을 배운다. 그것은 문법학인 라틴어, 로망스인 프랑스어 그리고 편지쓰는 방법을 포함하는 사학을 말한다. 이러한 학예의 지식

학생 가운데 30% 정도는 다시 법학(20%), 신학/과 의학부(10%)라는 삼급 학부에서 전문직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았다. 중세의 대학은 이미 적지않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법학, 신학, 의학 자로서 직업교육을 받고도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공분야는 직업을 얻기 위한 장소로 되었던 것이다. 대학은 교과 과목에 필요한 모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확보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

수 있는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도서관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며, 오늘날의 대학은 그 자체로 도서관을 가지 않았다. 서적은 주로 학로(College)에 대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자들이 사용했다. 대학에서 책을 빌리거나 사거나 그 자리에서 책을 수도 있게 되었다. (학술부)

1997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Table with columns: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정원, 모집인원, 비고.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enrollment numbers.

Table with columns: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정원, 모집인원, 비고.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enrollment numbers.

Table with columns: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정원, 모집인원, 비고.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enrollment numbers.

호남의 금석

(6) 전북에 새겨진 명사의 글씨따라 - 부안 서림공원에 새겨진 글씨들 -

예로부터 호남은 맛과 멋을 아는 예술의 땅(藝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장은 많은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배출했으며, 명인(名人)들이 남긴 글씨문 또한 적지않게 남아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최대명당 가운데 하나인 송장군 일변면 마하리에 있을 쓰로서사 김장생이 탄생했다고 전하는 설화 장소에 사계(四季)의 손수 쓴 비문이 있고, 일산군 신계면 단구리(丹丘)에는 경남 하동군 27개면 송계사 일구에 포유 최치원이 쓴 송계서문(雙峯石門)이라는 글씨를 그대로 본떠서 새긴 삼계석문(三峯石門)이라는 글씨문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전원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전주시 외곽에 위치한 남고산성에 있는 절은 정봉주가 '형제 반만 가파른 돌길 비가래야, 홀로 오르자니 가슴 배인대(千層巖石階難, 登嶺無梯不勝)'로 시작하면서 쓰려진 가는 비문을 잘라낸 시를 반하여 새겨놓은 것이 있으며, 산성 안팎의 냇고시에는 단종의 폐위로 평생을 방랑하던 매월당 김시습의 부도와 이 고장이 배출한 명필 이삼만이 쓴 남고산비가 있다.

정봉주 사내에는 조선 인조 때 당파 심전도의 골짜기를 깊고자 정나라를 정벌하였다는 포루를 띤 뒤양 송시열의 글씨로 쓴 비석이 있고, 후사 김장생은 정방의 명필로 고한 언술에 백의의 사비와 일삼에 소개한 문비, 그리고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정부인광산김씨묘(貞夫人光山金氏之墓) 비석 앞면의 정부인광산김씨묘(貞夫人光山金氏之墓)라는 전사(篆書)를 남기고 있다. 이 비석의 뒷면 글씨는 이삼만이 썼는데, 그래서 이 비석의 글씨는 김장생의 이삼만 두 사람의 합작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인은 김씨며 본관은 풍산이다. ... 장성하여 우리 할아버지, 가신대부 최창익(崔昌翼)의 계모가 되었다. ... 할머니의 천성은 침착하고 무게 있으며 근절하였고, 집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었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 장남과 둘째가

모두 효행이 있어 세인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여 조경으로부터 둘째아들이 효자 정려를 받으니, 사람들은 모두 명모(孟母)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일곡(吳鹿) 산동성(山東)의 남쪽으로 향한 언덕은 우리 할머니 정부인 김씨의 묘소가 여기에 있다. 훗날 백년 후에 돌이켜 천관(天官)의 총애(寵愛)를 만나니, 손수 쓴 글씨를 남겨 놓고 가니 묘소를 알게 하노라. 송정 기원후 네 번째 맞는 계사년(1833) 5월(夫人金氏, 系光山... 及長, 歸于我祖考 嘉慶公 諱昌物 墓配也. ... 惟汝重動俗 浩氣循法度, 有三男二女. ... 長男仲男, 俱有孝行, 高世所稱, 仲男淑旌族之恩, 人猶曰 孟母之教, 不謬矣. ... 銘曰 菴鹿之原, 坐落之原, 惟我祖 貞夫人 金氏之墓, 托在 茲族, 後于百年, 即知其高天宮 幸之女族, 旌顯學子之母親, 崇報祀元祐 西曆己丑五月 日.)

이 고장이 배출한 명필답게 이삼만은 앞에서 말한 남고산김씨묘와 정부인광산김씨묘의 글씨와 더불어 전주시 서산동에 있는 전주최씨조묘지와 완주군 용진면 증가산대부 공조장판 이우계 묘비도 남기고 있다.

정봉주만이 글씨를 남긴 것은 아니다. 비록 커다란 비문을 허거나 평평(70cm)을 이룩하여 남기는 못했지만 이 땅의 양민들은 종류산(宗柳山)을 통해 지은 사비를 바위에 새겨놓았으며, 시 하나 변역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예향' 곳곳에 명필 작품 수두룩

'정부인 묘비' 앞면 추사·뒷면 이삼만이 휘호

네 이름 석 자라도 세겨 놓은 곳이 적지 않은데, 부안에 있는 서림(西林)공원이 바로 그런 곳이다. 부안군청을 들어서 서림공원에 들어오면 입구에 혜천(惠泉)이라는 샘과 금대(琴臺)라는 바위, 그리고 그 옆에 매창시비와 서림정(西林亭)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주위에 둘러 있는 바위들과 석벽에는 혜천과 금대, 그리고 서림공원에 대한 칭송을 위한 내용으로 찬찬히 글씨와 시문이 새겨져 있다. 우선 서림공원을 노래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하나는 현감을 지낸 홍철주(如顔 洪澈舟)라는 사람이 신유년(辛酉:1921)에 "산 빛은 태고처럼 변함없고, 바위는 만년을 지내온 듯하다(山光如太古, 石氣可長年)"는 글로 서림공원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부안군수를 지냈던 고태조(知郡 高濤造)의 시가 있는데, 그는 갑오년(甲午:1894) 여름에 쓴 시에서 서림공원을 찾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부안 고을 명승지도 많는데, 몇 차례나 서림을 찾았다. 높은 바위에 고색이던 이끼, 돌이든 시내에 꽃피는 풀 잎, 예천에는 맑은 날 비소리 들리고, 관아 바위 숲에 내뿜는 애물진 꽃, 하늘 끝에 걸터앉은 유학사(柳學社)에, 세속 떠난 바위만이 유유하구나(扶藜多勝跡, 絕塵獨西山, 石室蒼苔古, 巖松翠柏翠, 高軒作野, 高柳雲生綠, 忽憶嶺南遊, 悠悠外外山.)



(완주 용진면 '정부인광산김씨묘(貞夫人光山金氏之墓)' 비석 앞면의 글씨와 뒷면은 이삼만이 쓴 합작품으로 남아 있다.)

김장생·최치원·정봉주·송시열 글씨 남아 부안서림공원... 샘·바위·매창 예찬 시도 '이름없는 글씨' 석벽에 새기며 풍류 즐겨

혜해년(癸亥:1923) 중추(仲秋)에 이 시에서 석양에 본 서림공원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술 아래 우물 우물 아래 금대, 옛 사람 입각이 반쯤은 시가에, 석양의 아름다움 말로 다 못할라네, 시나 갔다가 다시 오누나(林下清泉下, 吾人題石半得奇, 醉時境難離, 綠水中間去後來.)

혜천의 아름다움과 샘물의 맛을 칭송하는 글은 물론 여러 편이 된다. 다만 양철은 절은 끝에 마시는 한 비까지의 샘물맛은 그이만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꼬마를 때우는 샘(惠泉)처럼 여겨졌지만, 또 배추라 했으니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샘이라는 뜻도 되었고, 주어도 주어도 머지 않는 아름다움 사랑처럼, 금대서 존정(尊正) 이영무(李永夫)라는 사람은 생 위에 있는 바위에 샘물과 바위는 더욱 아름다워(泉石尤佳)는 글씨를 새겨 놓았고, 한상(韓相) 신승(申承)이라는 사람은 혜천에 개울(溪)을 새겼고, 중추(仲秋)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바위에 새겨진 글씨,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 이를 먹는 사람은

모두가 장수 누려, 신선처럼 붉은 열매 변함없이(巖巖泉湧石室, 汲飲必獲靈藥, 汲飲必獲靈藥, 仙山不改巖巖.)

바위틈에 솟은 샘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경환(李景煥) 같은 사람이 '선녀가 물 길러 올라 두렵다'고 했을가, 또 샘물이 얼마나 맛있으면 군수를 지낸 황관수(如那 黃觀壽)라는 사람은 혜천의 샘물을 '가뭄에 대비'라 했었다.

산줄기 정자 안고 굽어 돌아, 한 읍을 물결에 석유수(石乳水) 시원하다, 선녀를 길러 올라 두렵워서, 깊은 밤 백하늘을 모두 빛냈다(山精轉出小茅窠, 一思汲石乳, 恐被仙娥來汲, 深潭噴噴噴噴.)

혜천 이름이 있는 금대(琴臺)를 노래하는 시도 있다. 운정(雲亭) 윤시영(尹始永)의 시가 바로 그것이다.

서림 바위 절 금대에, 원님은 바게 집 있고 이끼에 늘는다. 맑은 물소리와 금대가 스며들라, 기쁨에 빛났던 같이도 사랑스럽다(西林巴石修琴臺, 太守深憐翠, 嚴峽清鳴峴下, 早天去去雨霖霖.)

우암(禹巖) 이림(李爾)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두 편의 시를 남겼다. 하나는 정자에 있어서 마시는 샘물의 맛이 '장수하는 금대의 맛'이라는 표현한 시이다. 다른 하나는 서림공원에 있는 금대에 누워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술과

대나무가 어우러지는 소리에 취한 느낌을 나타낸 시이다.

백적거리며 두레박 소리 정자에 울려오니, 가는 물줄기 석유수(石乳水) 시원하다, 혜천의 독한 기운 없애, 장수하는 이 샘물이 맑다(金井)이더라(靜泉噴噴噴噴, 泉脈噴噴噴噴, 不啻玉泉, 靜泉噴噴噴噴.)

차가운 바위에 누워 본다, 높은 산, 흐를 물 얼마나 되었을까, 술과 대나무 진종일 서로 어울려, 줄 것은 거문고 줄 있는 소리이다(老松出出老松出出, 高山流水石室, 松篁盡日交奏, 豈無絃絃絃絃.)

서림 바위 절 금대에, 원님은 바게 집 있고 이끼에 늘는다. 맑은 물소리와 금대가 스며들라, 기쁨에 빛났던 같이도 사랑스럽다(西林巴石修琴臺, 太守深憐翠, 嚴峽清鳴峴下, 早天去去雨霖霖.)

'원님은 잘 짓고 이끼에 늘는다'는 표현으로 보아, 아마 다도 윤시영이라는

사람은 원님의 이레사적이거나 친구 시회(詩會)의 벗 정도가 되겠다. 이제까지 말한 시 말고도 혜천(惠泉) 위 석벽과 바위에 새겨놓은 송남포(洞南浦)라는 사람이 쓴 '무정(無情)'이라는 글씨와 김태규(金泰圭)라는 사람이 쓴 '가을(秋)'이라는 글씨는 첫눈에도 아주 잘 쓴 글씨처럼 보인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부안도(부풍은 부안의 옛이름) 하늘과 땅, 소신의 해와 달(扶風政地, 蘇山日月)'이라는 표현으로 서림을 제법 호기롭게 나타낸 글씨도 있다. 그리고 몇몇은 시나 글씨를 지을 줄 몰랐다 그랬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랬지만 자신들 이름 석자만 일곱 글씨로 새겨놓은 사람들도 있다. 유난히 글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난히 글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난히 글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림공원에 있는 '시' 말고도 혜천 위 석벽과 바위에 흥남표가 쓴 '友情'과 김태규가 쓴 '무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대학문화신문 연구구독 권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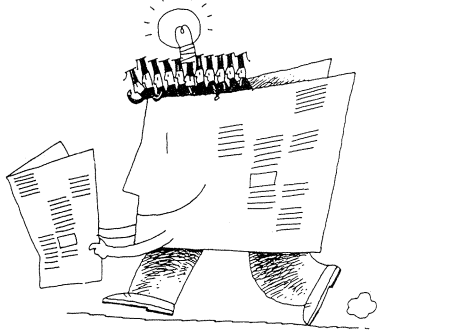
"젊은이는 당당한 삶의 개척자"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그리고 건강한 대학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인 모두의 열린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인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길 방향을 찾는 대학인의 열망이, 오로지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간은 다양하고 마음 속에 그려진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근정하게 노력하는 젊음이들과 대학문화신문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를 모집합니다.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독자모집을 바랍니다. 대학원생 2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원고로 4~5매 분량으로 보내주세요. 여론은 특유의 매력에 힘입어는 편집합니다.
- 기사 소지나 기사가이름을 제공해 주십시오. 대학문화신문의 고충난을 중심으로 다루어 할 기사 또는 기획주제에 대한 기사가이름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들의 공감을 불러드려주세요. 전라도 지역선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연락주세요. 최우선으로 편집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신청서

연구구독기간	1996년 ()월부터 1997년 ()월까지
연구구독 신청하시는 분	주소 ()대학 ()대학 ()학과
연락처	주소
신문발행 부실 분	주소
구독료	()만원정금
납부명령	*대학문화신문 연구구독료는 10,000원입니다.

위와같이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1996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귀중

*연구구독 신청하신 분은 위 내용을 기재하여 팩스(02-762-1366)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자에게는 정무로 우편발송을 해드립니다. *연구구독료는 아래 은행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신 후 독자관리부(전화 741-1681)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하기 02-620-8833 대구주 대학문화신문 *제발행월 129-20-13197 대구주 대학문화신문 *연구구독 문의처: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서울시 중로구 윤문동 98-78 가든타워빌딩 10층 전화 741-1661/팩스 762-1749

대학문화신문사
The University Culture Press
서울시 중로구 윤문동 98-78가든타워빌딩 10층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진로와 취업, 그리고 밝고 건강한 대학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사제출: 02/762-1366/전화란 나무누리 하이텔 ID: UCPress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 02/741-1661~2, FAX: 762-1749

